

'24년 4분기 가계소득 +3.8% 증가(실질소득 +2.2%),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증가(3분기 연속)

- 3분기 연속 전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하며 6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
- 흑자액 7.8% 증가, 2분기 연속 소득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

'24.4/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(+2.3%)·사업소득(+5.5%)·이전소득(+5.6%)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이 +3.8% 증가^{6분기연속}, 실질소득도 +2.2% 증가^{3분기연속}하였다.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3.9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 (4/4)3.8

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0.5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 (4/4)2.2

** 항목별 소득(전년동기비, 만원): (근로)324.1<+2.3%> (사업)109.1<+5.5%> (이전)70.9<+5.6%>

3분기 연속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, 1분위의 경우 고령가구 증가 등으로 근로·사업소득이 감소하였다. 5분위는 근로·사업·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였다.

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3.8 (1분위)+3.0 (2)+4.4 (3)+4.4 (4)+3.6 (5)+3.7

소비지출은 주거·수도·광열, 음식숙박 등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체 소비지출은 +2.5% 증가^{16분기연속}(실질 +0.9%)하였다.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상회, 흑자액은 +7.8%(실질 +6.1%) 대폭 증가하였다.

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,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소득 5분위배율은 5.28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(△0.02배p)하였다.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.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(배): ('21.4/4)5.71 ('22.4/4)5.53 ('23.4/4)5.30 (24.4/4)5.28

정부는 가계소득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·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,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.

※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이진민 (044-215-85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지희 (joyee@korea.kr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1

주요 동향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.5만원, 전년동기대비 +3.8% 증가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3.9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 (4/4)3.8

○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+2.2% 증가

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0.5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 (4/4)2.2

*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3.4 ('24.1/4)3.0 (2/4)2.7 (3/4)2.1 (4/4)1.6

□ (소득항목별)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증가

* 항목별 소득(전년동기비, 만원): (근로)324.1<+2.3%> (사업)109.1<+5.5%> (이전)70.9<+5.6%>

○ (근로소득) 임금근로자 증가*, 임금 상승** 등에 따라 증가

*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3.4/4)35.6 ('24.1/4)32.6 (2/4)25.9 (3/4)20.1 (4/4)7.3

** 전체 임금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2.5 ('24.1/4)1.3 (2/4)3.6 (3/4)3.4 (10월)3.4 (11)2.3

○ (사업소득) 자영업자 증가폭 확대*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** 등으로 증가

* 자영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3.4/4)0.2 ('24.1/4)△0.9 (2/4)△10.1 (3/4)△2.6 (4/4)1.0

** 불변서비스업 생산지수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1.77 ('24.1/4)2.06 (2/4)1.65 (3/4)0.78 (4/4)1.40

○ (이전소득) 국민·기초연금 수급액 인상(+3.6%) 및 수급자 증가, 부모급여 인상('23년 35~70만원 → '24년 50~100만원) 등으로 증가

분위별 소득

□ 모든 분위에서 소득 증가

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3.8 (1분위)+3.0 (2)+4.4 (3)+4.4 (4)+3.6 (5)+3.7

○ (1분위) 고령가구 증가* 등으로 근로(△4.3%)·사업소득(△7.9%)은 감소했으나, 기초연금 및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** 등으로 이전소득(+7.8%)이 큰 폭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

* 가구주 평균연령(세, '24.4/4): (1분위)60.9 (2)53.1 (3)50.1 (4)49.7 (5)50.9

**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(월 32.3→33.4만원),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(30%→32%) 및 급여액 인상(+13.2%)

- (5분위) 근로(+0.5%)·사업(+9.8%)·이전소득(+6.4%)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 큰 폭 증가

지출 · 가계수지

- (비소비지출) 경상조세(+5.3%), 비경상조세(+33.4%)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소비지출이 증가(+2.8%)
 - 다만, 이자 증가율이 $\Delta 9.4\%$ 감소하며 비소비지출 증가율 둔화
 - * 비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5.6 ('24.1/4)1.2 (2/4)3.7 (3/4)0.5 **(4/4)2.8**
 - 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경상조세)+5.3 (비경상조세)+33.4 (이자) $\Delta 9.4$
- (소비지출)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.3만원으로, 주거·수도·광열, 음식·숙박 등을 중심으로 +2.5% 증가(실질은 +0.9%)
 - 자동차 구입($\Delta 29.0\%$) 및 통신장비($\Delta 10.7\%$) 지출이 줄며 교통, 통신 등 감소
 - * 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주거수도광열)+7.6 (음식숙박)+5.1 (교통) $\Delta 9.6$ (통신) $\Delta 2.4$
- (가계수지) 총소득 증가로 처분가능소득은 +4.0% 증가하며 6분기 연속 증가, 흑자액은 +7.8% 증가
 - 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,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 - **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3.5 ('24.1/4)1.4 (2/4)3.5 (3/4)5.5 **(4/4)4.0**
 - 흑자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0.1 ('24.1/4) $\Delta 2.6$ (2/4)0.9 (3/4)10.2 **(4/4)7.8**

소득분배

-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28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($\Delta 0.02$ 배p)
 - 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(배) : ('21.4/4)5.71 ('22.4/4)5.53 ('23.4/4)5.30 **(24.4/4)5.28**
-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□ [평가] 총소득 6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, 실질소득 3분기 연속 증가

- '24.4분기 가계 총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며 6분기 연속 증가,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증가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3.9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 **(4/4)3.8**

** 분위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3.8 (1분위)+3.0 (2)+4.4 (3)+4.4 (4)+3.6 (5)+3.7

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24.1<+2.3%> (사업)109.1<+5.5%> (이전)70.9<+5.6%>

- 실질소득은 +2.2%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증가, 증가율 확대

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0.5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 **(4/4)2.2**

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4/4)3.4 ('24.1/4)3.0 (2/4)2.7 (3/4)2.1 **(4/4)1.6**

- 2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

- 비소비지출(+2.8%)과 소비지출(+2.5%) 모두 증가했으나, 총소득 큰 폭 증가로 처분가능소득(+4.0%) 및 흑자액(+7.8%) 모두 증가

* 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경상조세)+5.3 (비경상조세)+33.4 (이자)△9.4

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주거수도광열)+7.6 (음식숙박)+5.1 (교통)△9.6 (통신)△2.4

□ [대응방향] 가계소득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·물가안정 노력 강화

-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,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

- '1/4분기 민생·경제 대응 Plan'을 가동해 일자리, 물가안정,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 발굴,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

* 「농·수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대책」(2.6일), 「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」(2.19일) 등 발표

- 「일자리 전담반(TF)」 등을 통해 고용 여건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하고, 핵심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 지속 강화*

* '25년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(+6.42%), 자활성공금 신설(최대 150만원) 등